

◆머느리권씨 열전 24-1

이귀(李貴 연안 이씨)의 어머니 증 정경부인 권씨 (시중공파22세 권용의 딸)

남편(추증), 아들, 손자2 명의정, 91세의 장수와 고종명, 자식의 효도를 듬뿍 받은 삶
조선에서 신사임당,해평 윤씨, 안동 장씨부인(장계향)을 능가하는 어머니상을 구현함
무지개색 7색 교육으로 홀로 7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공로,의병장,정승으로 키워내다



산동성 조장시 2000만평의 연꽃밭, 여기는 영락제 제1비 공헌 현비 권씨(북아공파 권집중의 녀)의 능묘, 권만형의 관곡지, 제 천 신동에 건설 예정인 옥소 권씨의 ‘연꽃마을’등은 그 인연의 끈은 이렇듯 길게도 이어진다. 현대에 연꽃과 그 산물이 주는 심신 건강은 권문의 새로운 비전이고 아젠다이다. 애련설의 유학과 불교,기독교에 있어서 두 중요한 꽃이다. 권문 지상의 꽃이 황화목이라면 연꽃은 수상의 꽃이다.

2025년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이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신병주 교수는 “연안이씨를 명문으로 만든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주로 17세기 조선 중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특히 목재 이귀와 그의 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강연에서는 목재 이귀와 그의 아들들이 이시백과 이시방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졌다. 목재 이귀는 조선 중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인조반정, 병자호란, 대동봉 등 당대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귀는 뛰어난 학문과 정치적 성취로 주목받았으며, 그의 두 아들인 이시백과 이시방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또한, 신병주 교수는 이귀의 어머니인 안동권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동권씨는 91세까지 장수하며, 남편인 증 영의정 이정화, 막내 아들인 증 영의정 이귀, 손자인 영의정 이시백을 모두 1품 관리로 키워낸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신병주 교수는 이귀의 어머니인 안동권씨를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 모델로 꼽히는 신사임당과 해평 윤씨에 버금가는 인물로 가능성을 점쳤다. 즉, 그녀는 단순히 남편과 아들들만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인물로서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여성상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이 강연은 연안이씨 의정공 정화공 종중에서 주최한 행사로, ‘혁명가와 의병장을 키운 어머니’라는 책의 출판 기념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 책은 연안이씨 의정공 정화공의 가문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 특히 권씨 부인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에서는 안동권씨를 비롯한 여성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삶과 업적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의 증거이다.

혁명가와 의병장을 키운 어머니

특히, 이 책은 고전학자 이지희와 역사 문종작가 이상주가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이귀와 그의 가문의 영향력을 통해 조선 중기의 문종사와 국가 역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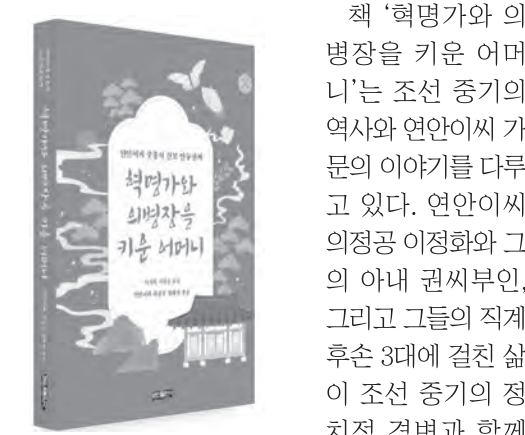
이번 강연과 책의 출판은 조선 중기 역사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목재 이귀와 그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인 안동권씨와 같은 여성 인물들이 가문의 발전과 국가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권씨는 조선 중기의 명문가 출신으로, 그녀의 생애는 강한 모정과 자녀 교육을 통한 국가적 기여로

점철되어 있다. 그녀는 시중공파의 23세 후손으로, 아버지 권용(22세,정송부사)의 딸로 태어났다. 남편 이정화는 아들(이귀) 덕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그녀의 아들 이귀는 좌찬성을 거쳐 증 영의정에 올랐고, 손자 이시백 또한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그녀는 조선 왕조에서 3대에 걸쳐 최고위직을 배출한 집안의 중심에 있었다.

권씨는 37세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일곱 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생존과 교육을 위해 한양에서 남쪽 익산으로 이주한 그녀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엄격한 훈육과 감성적 교훈을 통해 자녀들에게 충성과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자손들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녀의 장남 이보(李寶)는 임진왜란 당시 익산에서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이후 막내아들 이귀는 인조반정을 주도하며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참여하여 조선 사회의 안정을 위한 헌신을 보였다. 이러한 가문의 총질은 권씨의 교육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진정한 머느리 권씨의 백미, 양성 평등의 시대, 8고조도의 시대. 권문의 머느리를 조명한 그녀의 시집 문장이 만든 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제 권문에 시집과 집안의 총총을 이끈 분들도 조명할 시점이다. 이 출간에 관련한 연안이씨 문종과 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 ‘성화보’의 정신인 양성평등 원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묵할 만한 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양반가 여성의 역할과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한다.

책의 중심에는 권씨부인이 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의정공 가문을 명문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씨부인은 남편이 정화가 사망한 후 서른일곱의 나이에 홀로 남아 어린 일곱 남매를 키웠다. 생계를 위해 한양에서 익산으로 이주하여 가문의 재건과 자녀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아들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녀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며 능력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장성한 아들에게도 회초리를 들며 훈육했으며, 감성적인 훈계도 병행했다. 이러한 교육관은 자녀들에게 충성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장남 이보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서 전사했고, 다른 아들들과 후손들은 인조반정에 참여하는 등 나라를 위한 헌신을 실천했다.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

서는 권씨부인의 유학적 소양을 설명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그녀가 실천한 자녀 교육법을 소개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그녀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가문의 이상을 실천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며, 다섯 번째 장에서는 그녀의 손자들이 조선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연안이씨 문종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문중의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대의 시대 정신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강조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정공 이정화와 권씨부인,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정경부인 권씨의 기제

시중공파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쳐 이어진 명문가로, 권씨의 조상들은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8세손 권여(호장공,군수급)– 9세손 권용(문하시중,국무총리급)– 10세손 권인가(시중공파파조)– 11세손 권화평(은둔)- 12세손 권협중(역락당,총렬왕 관직 거절)- 13세손 권지서(장사랑)– 14세손 권합경(종랑장)– 15세손 권승길- 16세손 권진(문과급제)- 17세손 권홍(공조판서)- 18세손 권삼(문과급제,사간)– 19세손 권극화(충청도관찰사, 증 영의정)- 20세손 권강(화천군,양평공,사간, 도승지, 대제학)- 21세손 권만형(사헌부 감찰, 시중 관곡지 주인,강희맹 사위)이 있었으며, 22세손 권용(權鎔)의 딸이 바로 이귀의 어머니인 권씨였다.

그녀는 사후 정경부인의 품계를 받으며, 조선에서 여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가문을 잇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모정의 힘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연안 이씨 증 영의정 이귀

이귀(李貴, 1557 – 1633)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인조반정의 주역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선조 때부터 관직을 지냈으며, 임진왜란과 광해군 시기의 정치적 격변을 거쳐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그의 삶은 좌천, 유배, 그리고 반정을 통한 정치적 복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국가를 위한 개혁과 국방 강화에 기여했다.

이이와 선혼의 문하에서 성장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항복과 류성룡을 따라 종군했으며, 광해군 시절 능안군, 감무, 최명길과 함께 인조반정을 모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그는 반정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았으며, 인조반정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귀의 아들로는 이시백, 이시담, 이시방, 이시응, 이시형이 있으며, 딸로는 이여순이 포함된다. 형 이시백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때 활약하여 효종 때 영의정에 올랐고, 동생 이시방은 학문에 힘써 훗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시백과 이시방 형제는 대동법 확대에 적극 찬성한 인물들이다.

이귀는 연성부원군 이석형의 6세손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어머니의 훈육을 받으며 성정이 옹골고 단단히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선조 대에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당시 동인들의 공격을 받으며 실현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이귀는 서울에서 강릉참봉으로 근무 중 의병을 모집하여 류성룡 휘하에서 종군했다. 선조 실록에 따르면, 류성룡은 이귀의 군사 훈련과 전략적 기획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기자

전자신고방법의 도입과 내용

I. 개요

국세청은 2002년 4월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세무 신고와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홈택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II. 홈택스에서 세금 전자신고가 최초로 도입된 해는 2002년입니다.

1. 전자신고 도입의 배경과 이유

가.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

전통적인 세무 신고 방식은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나. 행정 효율성 증대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통해 대량의 신고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고 오류를 줄이며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정보화시대의 흐름 반영

2000년대 초반은 인터넷 보급과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납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라.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데이터가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세금 신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전자신고 시스템은 단순히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신고 안내 및 오류 검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신고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무 행정의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III. 전자신고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00 ~ 23:59:59)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 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조회

- 전자신고:**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으니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납부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 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각 신용카드사 문의)
 - 나.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타인 명의 카드(또는 계좌)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카드(또는 계좌) 명의자로 홈택스 로그인 후 [타인세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연대납세의무자는 각각 본인 주민번호로 가입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등 연장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신고분,고지분)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신고를 한 후에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정상 납부처리합니다. (단, 전자신고 한 당초 전자납부번호는 납부기한까지 조회됩니다.)
 7. 국세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안내]

가. 국세를 완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계속 조회되어 삭제를 원하는 경우- [완납한 납부서 삭제]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버튼을 선택하여도 팝업창이 안 뜰 경우,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팝업차단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옵션-개인정보-팝업차단 사용] 체크 해제)

VI. 납부방법

1. 홈택스(온택스)

가. 전자신고를 하였던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나. 전자신고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 세금 납부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 납부]

2.인터넷 뱅킹

가. 모바일 뱅킹

-국세 납부화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예시)공과금>국세/관세>국세

나. 인터넷지로

(모바일 지로)
- 국세 납부화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국고금>국세

다. 계좌이체-은행 홈페이지(앱)에서 계좌이체 화면 이용

- ① 국세계좌 납부 : 수수료 없음
 - ☞ 입금은행 : 국세/입금계좌 : 납부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 ②가상계좌 납부
 - ☞ 입금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
- 중 선택
입금계좌 :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번호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홍익인간(弘益人間)

홍익회, 홍익대학 등 ‘홍익’이라는 낱말은 아직 다 행하게도 살아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로 아는 이는 드물다.

개념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되어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홍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암 전문병원의 의사들도 암에 걸려서 주기도 하고, 안과에 가보면 대다수의 의사들은 안경을 쓰고 있다. 홍익대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확실한 홍익을 알 수나 있을까?

홍익인간의 참 뜻을 알려면 그와 연관된 다른 말들과 함께 살펴야 한다. 한민족의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 등에 보면, 성통광명(性通光明), 재세이

과 직접 대화의 통로를 열었다는 뜻이다. 이는 종교와 수련의 최종 목표이지만 한민족(韓民族), 다시 말하여 천손(天孫)에게는 ‘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일 뿐이다.

재세이화(在生理化)란 성통광명(性通光明)한 이들이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의 이치를 익히 알아 확고히 함) 함으로서 환경(자연)을 인간에게 최적화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재세이화(在生理化)의 결실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인 것이다.
비로소 인간(생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생명체가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성통공완(性通功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홍익인간, 그 이

상이 실현된 사회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곧 ‘두레’였다.

아! 지구상에 어느 민족, 어느 종교, 어떤 사상이 이처럼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단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기를 바란다. 그 이름 ‘홍익인간’(弘益人間).

도개비 방망이

동물들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미리 알고 피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다.

컵에 들어 있는 물에다 대고 육설을 하면 물 분자가 파괴 되고, 화초에 대고 육을 하고 미워하면 곧 시들어 말라 죽는다.

어떤 부부가 밭을 넓히려고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이웃집에 살던 친구는 식물에도 의식이 있는 지를 연구하던 사람으로 그 나무에 식물의 파장을 감지하는 계기를 설치하였는데, 바늘이 심히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를 베려는 친구에게 왜? 저 나무를 베려고 하나고 물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무를 베려는 생각을 친구에게 말 한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친구는 나무를 베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자 그 나무의 축생기 바늘의 떨림이 신기하게도 멈추었다.

어찌 보면 이 대목은 인간이 동식물보다 훨씬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다.

취나 뱀송이들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예견하며, 나무는 어찌 농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을까?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는 분명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인간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분명 인간도 이런 능력을 오래 전에는 지녔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틀이 생겨난 후, 그 기능이 퇴화되었다.

알아차림의 과정은 이러하다.

우주는 항상 파동하고 있고, 동식물의 수신안테나는 그 파동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뇌에 전달되어, 뇌는 행동을 지시한다.
뇌는 몸 전체의 명령기관이다. 만약 위가 아프다면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담당하는

위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위에 나타난 이상 징후는 위 담당 뇌세포의 이상인 것이다.

즉, 위 치료(의학)는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하여 다시 재발하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는 위에 어떠한 치료제를 넣을 것이 아니라 뇌의 위를 담당하는 세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아니 그것을 무슨 수로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방법은 의의로 간단하다.
의식으로 하는 것이다.

의식은 파동이라서 뇌에 전달하는 순간 즉시 정상화 된다.

뇌는 의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 예를 보면, “사막의 라이언”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 그 관람객들이 나라마다 엄청난 음료를 소비하였다. 영화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진짜로 더움을 느꼈었고 또 실제로 음료를 마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뇌는 이처럼 생각만 하면, 그 생각대로 움직여 주는 정말 착한 바보다.

몸이 아파서 고통 받는 이들이여, 이 바보 뇌와 친하게 지내보시도록 하라!